

# 남구, 3선이나 새 인물이나...광산, 단일화·합종연횡 시작

## 광주 남구청장

김병내, 현직 프리미엄 기대  
황경아·김용집·하상용·성현출 등  
예비후보 등록...민심잡기 나서



김병내 김용집 박기수



성현출 조영탁 하상용



황경아

역화패 사용자 확대를 통해 공공자산 순환 경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효천 일대를 행정·교통 중심축으로 재편, 효천권을 남구의 미래 30년을 좌우할 핵심 구역으로 설정했다. 광주에서 유통기업 빅마트를 창업하고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제3·4대 남구의회의원을 지낸 성현출 예비후보는 문화, 교육, 돌봄 등의 분야에서 주민친화 정책과 실질적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출판기념회와 출마 기자회견을 선제적으로 진행한 그는, 유세 일정으로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하며 바닥 민심을 청취하고 있다.

국회의원에서는 조영탁 광주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가 출마를 준비 중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TBN광주교통방송 사장을 지낸 박기수 남구지역위원장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 광주 광산구청장

박병규 청장·박수기 의원·차승세 특보  
민주당 내 경선 '3파전' 구도 형성  
무투표 지역에서 격전지로 떠올라



박병규 박광식 박수기



정희성 차승세

광산구는 구청장을 겨냥한 후보들의 단일화와 합종연횡이 가시화되면서 격전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박수기 광주시의원, 차승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 간 삼파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박 청장은 현직 프리미엄에다 노인 복지정책, 주민참여 자치행정, 골목상권 활성화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역점 추진한 내 집에서 노후와 재발을 돕는 돌봄 서비스 '살던집 프로젝트'가 전국 표준 모델로도 검토되고 있다. 그는 광산형 복지 모델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선 8기 무투표 당선으로 인한 경쟁력의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재임 중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하남산단 지하수 발암물질 발견 사례는 시민 안전과 환경 정책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박수기 의원은 광산을 지역구로 둔 박필순·이귀순 의원과 단일화를 통해 세를 결집했다. 박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국면에서 광산구를 핵심구역으로 정하고 AI산업과 미래차 국가산단 중심의 발전을 꾀한다.

또 송정역 주변 개발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 3년간 의회 원내대표와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정치력을 넓혀왔다는 평을 받는다.

차승세 정무특보는 기존 후보군으로 꼽히던 정무장 광주시의

원의 지지를 확보하며 단일화를 공식화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후보군 가운데 유일하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유세에 나서며

바닥 민심을 청취하고 있다.

차 특보는 데이터 기반 AI 행정과 자율주행·미래모빌리티 실증을 통한 '혁신도시 광산' 구축으로 지방정부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광산구 비서실장, 광주시 정무특보 등을 두루 거친 행정경력을 내세우고 있다.

박광식 민주당 광산을 부위원장도 출마를 준비 중이며, 당내 후보자 자격 정밀심사가 끝나는 대로 출마 기자회견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박 부위원장은 도농 복합도시 특성을 반영한 태양광과 에너지 이익공유제와 스마트팜 구축, 인구 구성을 고려한 다문화 상생 거버넌스, 그리고 영산강·황룡강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예술관광벨트 구상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남도지사 비서, 전남도 국회의원비서관, 광산구 비서실장, 국회의원 보좌관 등 다양한 현장경험을 준비된 행정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희성 진보당 광주시당 지방자치위원장은 도농 균형 발전과 생활밀착형 정치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 미래성장 동력 어디에...선거의 핵심은 '경제'

### 민심·관전 포인트

백운광장 재편 이후 골목상권 회복 과제  
대촌·송암산단, 일자리 창출·경제 효과 주목

광주 남구청장 선거는 인물 대결을 벗어나 남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어디에 둘 것인가 묻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먼저 백운광장 재편 이후 체감도 평가가 지역 민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현 김병내 남구청장은 재임 중 백운고가를 철거하고 백운광장 일대를 재정비하는 상징적 사업을 추진했다. 교통 흐름 개선과 도시 경관 변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상권 활성화 체감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징적 변화' 이후 실제 골목상권 활성화와 유동인구 확대 등 생활경제로 어떻게 이를 것인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남구의 최대 숙원 중 하나는 대촌·송암산단 활성화다. 두 산단 모두 기존 전통 제조단지에서 벗어나 첨단·미래 산업 중심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암산단은 자동차·부품 제조 등 제조 기반 혁신과 함께 서비스·미래차 연계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대촌산단

에서는 에너지 분야 혁신 벨트 구축과 공공기관 및 기술 인프라 연계 기업 유치가 핵심 과제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파급력을 높이는 비전을 제시할지도 주목하고 있다.

후보들 역시 산업·경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용집 예비후보는 대촌 일대를 중심으로 한 'AI 스마트팜 융복합단지' 구상을 제시했고, 황경아 예비후보는 에너지밸리와 송암산단을 성장 거점으로 남구를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제시해 산업 기반 확충, 청년 인구 유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또 효천지구와 대촌 일대는 최근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서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을버스 운영 문제와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등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다.

정길호 남구방범1동 주민자치회장은 "남구의 여러 산단에 입주해 확장된 기업의 경제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주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면서 "민심은 행정통합 국면에서 에너지 기업의 남구 유치, 백운광장 지하도로 완공 이후 도시재생과 교통체증 개선 대책, 상권회복 등을 눈여겨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 지역 경제회복·생활안전 등 현안이 민심 좌우

### 민심·관전 포인트

금타 화재·산단 안전문제 이슈  
송정역·골목상권 회복 공약 경쟁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 선거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 경제회복, 생활안전, 첨단지구 발전 등 현안이 민심을 좌우할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후보들 간 단일화가 이미 가시화되면서, 세력 결집 양상도 당락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재임 기간 동안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정책을 추진하며 제조업, 서비스업, 마을 일자리카피 아우르는 경제 활성화 전략을 시도했다. 주민들은 지역 일자리 확대와 경제 회복 전략이 실질적으로 체감될지를 주목하고 있다.

광산구에서는 대형 산업단지 화재와 경기 불확실성 등 경제·안전 관련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점도 현안이다.

안전 정책도 이번 선거 민심의 핵심 변수다. 후보들은 침수 위험, 야간 보행 안전, 산업 현장 안전 등 생활 속 위험부터 재난 대응까지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약속하며, '안전도시 광산' 구축 의지를 밝혔다.

첨단1·첨단2동 일대 첨단지구는 광산구 핵심 생활·주거 거점으로, 도시형 상권과 연구·교육 인프라가 밀집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첨단 인근 주민들은 지역경제와 신산업 유치, 연구기관과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 광주·전남 차원의 AI·에너지·미래차 산업 유치 가능성에 관심을 쏟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서 후보 단일화 등 전략적 움직임이 진행되면서,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박 청장과의 경쟁 구도에도 눈길이 쏠린다.

현직 청장에 맞서 거론되던 후보들이 단일화와 합종연횡을 모색하며 출마 의지를 밝힌 가운데, 박광식 민주당 광산을 부위원장의 행보도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에 대한 당내 후보자 정밀심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호남 정치의 '메가' 역할을 자처한 조국혁신당이 시민사회의 목직한 인사 대상으로 후보를 물색 중이어서, 선거 지형과 민심 향배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김광중 광산구 수완상인연합회 회장은 "첨단지역 일대에 신산업 기업을 유치해 고용창출 효과부터 실제 주민들의 밥상머리까지 달라지게 할 후보를 지지하고 싶다. 광주 관문이자 광산구의 대표 얼굴인 송정역 일대 골목형 상점가를 얼마나 살리는지, 골목상권 회복에 집중할 후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이기원 단상 에세이집

312쪽 | 값 16,000원

# 生

누가 호박꽃도 꽃이냐고 묻길래 가장 실속 있는 꽃이라고 대답했다. 애호박은 개당 1천 원이 넘고, 황룻빛으로 물들인 채 노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연로한 호박은 개당 5천 원이 넘는다. 마누라 꽃이기도 한 노년의 호박꽃은 비록 찬란하진 않지만 실속과의 아름다운 꽃이다.

사랑의 프러포즈와 축하나 애도를 포할 때도 꽃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 꽃은 여인과 계절과 색깔과 향기를 아우르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못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물이 아닐까?

—본문 「꽃」 중에서

태어날 생(生)이나,  
살아갈 생(生)이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오롯이 보듬고 달린다.

**이기원**  
1957년에 태어났다. 국문학을 전공했고 육군대학을 졸업했다. 18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 3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있다. 「바람 나그네」, 「회전목마 인생」, 「밥벌레의 행복」, 「이방인」, 「생(生)」 등을 펴냈다.

**인터넷 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서점 판매** 광주(충장서림, 영풍문고) 나주(중로서적), 목포(연산서적) 순천(중앙서점), 전주(영풍문고, 혁신문고) 익산(동아서점)